

지역 소식 통

정읍시, 아열대 작물
재배 현장 노하우 전수

정읍시가 기후변화라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시는 지난달 28일 지역 과수 농가와 관계 공무원 등 49명으로 구성된 견학단을 꾸려 아열대 작물 선진지로 꼽히는 전남 해남군을 방문 현장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이번 벤치마킹(선진지 견학)은 기후 온난화로 인해 재배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정읍 지역에 맞는 새로운 과수 품목을 발굴하고 농가들의 재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먼저 해남군 농업 기술센터 내에 조성된 바나나 온실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온실 운영 현황과 다양한 바나나 품종의 특성을 살펴는 한편, 아열대 작물 생육에 필수적인 온·습도 관리법과 병해충 방제 기술 등 구체적인 재배 노하우를 공유받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산수물 도축장’
내년 시설 개선 대상지 선정

정읍시가 소비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6년 도축장 노후시설 개선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도비 3억 6000만원을 확보, 지역 도축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2030년까지 매년 도내 소규모 도축장 1개소를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후화된 도축장의 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도축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위생 관리를 가능케 하고, 이를 통해 축산물의 안전성 제고와 도축장의 경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관내 도축장인 ‘산수물’을 사업 대상지로 신청해 서면 평가와 현장 평가 등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쳤으며, 그 결과 지난달 25일 최종 사업 대상자로 낙점받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 진행

임정호 · 임종훈 의원, 파크골프장 활성화 방안 · 김치산업 발전 전략 각각 질의
오세환 · 최인규 의원, 인재양성 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정책 효과 각각 질의

고창군의회(의장 조만규)는 12월 1일 제320회 정례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를 상대로 군정질문을 했다.

이날 군정질문에는 임정호 의원, 임종훈 의원, 오세환 의원, 최인규 의원 총 4명이 질의자로 나섰다.

먼저 임정호 의원의 주요 군정질문 내용을 보면 △고창군 파크골프장 활성화 및 운영 효율화 방안으로 지역사탕상품권 환급제 도입, 연간 이용권 제도 추진을 제안, △하천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준설토 적치로 인한 주민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준설토 처리와 이송 계획을 하천 정비사업 계획 단계에서 구체화 할 것 등에 대해 질의를 하였다.

임종훈 의원의 군정질문의 내용을 보면 △고창 지역 활용 브랜드화 사업

추진 의향 판매 전략, 중장기적 계획, 청년 창업농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계획 수립 등 고창군 김치산업 발전 전략 △고창군 교통안전 문제에 관련하여 추가적인 주차장 확보계획, 선진주차 질서 확립 대책, 미래형 안전 설비의 선제적 구축 계획, 버스 승강장 편의성 개선 등 주차 문제 해결 및 미래형 교통 안전 · 편의 환경 조성 등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오세환 의원의 군정질문의 내용을 보면 △고창형 방과후 인재육성 시설 추진, 가족체류형 농촌유학 및 거주시설 설치, 고창형 공교육 추진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 및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 △대신면 대규모사업 관련 도로 기반시설 확충 방안으로 지방도 706호선 확포장 계획

수립 및 교통량 증가에 따른 안전 대책 방안 마련, △상금리 자석묘군의 가치 보존 및 위상 강화를 위해 세계유산 추가 등재 필요성, 국가유산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농산물(가을배추, 가을무) 가격 폭락에 따른 지원 대책 등에 대해 질의를 하였다.

최인규 의원의 군정질문의 내용을 보면 △민선 8기 축제 정책 및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한 대안과 향후 계획, △주요 매각 시설 및 부지(고추종합가공처리장, 용평 리조트)의 매각 배경과 절차의 투명성 및 고창 종합테마파크 사업 추진 상황, △군수님의 핵심 비전, 중장기 발전 대안, 사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와 혁신적 방안 등에 대해 질의를 하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농산물 안전분석실’로 밥상 안전 · 농가 소득 큰 호응

정읍시농기센터, 463종 잔류농약 성분 정밀 분석 등 전문 컨설팅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운영 중인 ‘농산물 안전분석실’이 지역 농업인들에게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출하 전 무료 잔류농약 검사 를 통해 복잡한 농약 안전 기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소비자에게는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제2청사 후관동에 위치한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연중 운영하며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산 활

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출하를 앞둔 농산물을 대상으로 463종에 달하는 잔류농약 성분을 정밀 분석한다. 분석 결과에 따라 농산물의 출하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판별해주고, 적절한 출하 시기 조절과 올바른 농약 사용법에 대한 전문 컨설팅까지 제공하고 있다.

최근 농산물 안전관리 정책이 강화되면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MS)’가 시행됨에 따라 농가들의 주

의가 더욱 필요해진 상황이다. 이 제도는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해야 하며,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의 경우 0.01mg/kg의 일률 기준이 적용된다.

만약 이를 위반해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해당 농산물은 출하가 연기되거나 용도 전환, 심지어 폐기 조치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농업인은 공익직불금이 최대 40%까지 감액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수, 고창 랍사르습지도시의 가치 세계에 알리다

심덕섭 고창군수가 헝가리 타타사에서 열린 제4회 랍사르 습지도시 시장단 회의(11월27~29일)에 참석해 ‘고창형 주민 주도 습지도시 관리 정책’을 전 세계에 알렸다.

‘제4회 랍사르 습지도시 시장단 회의’는 전 세계 27개국 74개 습지도시 시장단과 국제기구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며 진행됐다.

심덕섭 군수는 랍사르 습지도시의 공공민간 파트너십 세션에서 고창군 습지도시 관리 사례를 발표했다.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습지관리 계획 수립과 이행, 주민 주도형 운곡습



지 논둑 복원 사례, 갯벌복원지를 활용한 주민 생태관광 사례, 운곡 및 갯벌 습지 관리 거점 센터 건립, 주민 복지 개념이 도입된 습지 정책 방안에

대한 사례 발표를 통해 전 세계 시장 및 관계자들에게 고창 랍사르습지도시의 비전을 설명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병원비 걱정 없이 출산하세요”

정읍시, 고위험 산모에 최대 300만원 지원

정읍시보건소가 고위험 임신으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고위험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을 돕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정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조기진통, 당뇨병, 자궁경부무력증 등 19가지 고위험 임신 질환을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범위는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다. 단, 상급 병실 이용료나 환자 특식 등 일부 항목은 제외된다.

지원 한도는 1인당 최대 300만원이다. 만약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신 진

단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지원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분만 후 1회에 한해 지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산모는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e-보건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러한 시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은 실제 수혜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22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 11월 기준으로는 24명으로 늘어났다는 등 지원을 받는 임산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소는 이 사업이 고위험 임신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 안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해 사업을 꾸준히 이어 갈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 격포점 개장

부안군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 부안 로컬푸드직매장 격포점을 개장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장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해 지역 농업인과 출하농가, 변산면 주민 등이 참석해 새로운 로컬푸드 거점의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번에 문을 연 170평 규모의 격포점은 변산 · 격포 관광지 방문객의 유동성을 기반으로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는 물론 지역 농가가 직접 생산한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 간편식, 가공품 등 다양한 로컬푸드 상품을 관광객에게 직접 제공 · 판매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는 단순 판매시설을 넘어 관광수요와 지역 농산물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관광형 로컬푸드 플랫폼으로 부



안 로컬푸드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익현 군수는 기념사에서 “격포점이 농업인과 소비자, 지역과 관광객을 잇는 상생의 장소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로컬푸드 기반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농업 · 지역경제 · 관광의 선순환 모델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전북 최초 공공건축물 관리실명제 추진

부안군이 군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관리 책임성을 높이고 불편 사항을 즉각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최초 공공건축물 관리실명제를 추진한다.

군은 군 소유 공공건축물 378개동 중 1차로 245개동에 대해 1일부터 관리실명표 부착을 시작한다.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실명표 부착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에 부착되는 관리실명표에는 건물명, 주소, 준공일자, 연면적 등 기본 정보는 물론 해당 시설물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명과 연락처가 명확하게 기재된다.

이는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시설 파손이나 청소 미흡 등 불편 사항을 발견했을 때 번거로운 절차 없이 현장에서 실명표에 적힌 관리 부서로 즉시 전화해 신속하게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군은 이번 관리실명제 도입을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리 주체가 명확해짐에 따라 시설 관리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보다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시설 관리가 정착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